

Track 09

재생 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식지 [재생하다] 제 9 호

[재생- 다시 Play]
낮선 시선으로 바라보는
도시의 기억들

Intro

도시, 기억의 재생- '재생하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소식지 '재생하다'에서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람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여러 세대의 이야기가 쌓여갈 이 공간에서
너무나 가까워 보이지 않았던 도시의 일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기록하고자 합니다.
정지된 시간을 더듬어 가끔은 멈춰 서서 바라보다,
다시, 시작합니다. ■ || ►

역사와
시간

공간의
재발견

사람과
커뮤니티

발 행 일 2018년 8월 17일
발 행 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4길 15-6)
발 행 인 이재근
기획·디자인 어떤생각이든연구소
인 쇄 일신옵셋인쇄사
문 의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064)727-0617
홈 페이지 www.jejuregen.org

Intro

도시, 기억의 재생- '재생하다' 02

기획콘텐츠

Facade: 인상의 회복 04

버려진 공간 안에 별빛을 들여온 사람들 08

예술을 사랑하는 산책자가 바라본 제주도 12

과거와 현재- 두 개의 시간, 두 개의 시선 15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기획전 공간 답사

도시재생소식

제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함께 할 전문가 활동 시작 17 도시재생 뉴딜 전문가 교육 수료생 34명 배출

도심, 건물, 블록을 담다 18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CI 개발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돼야” 19 주민발언회 2018 공감마이크 오븐 3회

제주시 원도심을 바꿀 방법을 찾아보다 20 '리노베이션 스쿨 in Jeju' 현장스케치

곰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게 마썸 22 제주시 신산머루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혼디 손심영! 지꺼진 월평마을을 만들куда 23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마을교육공동체 실현 24 도시재생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본격 가동

“제주시 원도심의 미래를 함께 할 지역혁신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24 ‘도시재생 Start-Up Challenge’ 공모 사업설명회

Facade: 인상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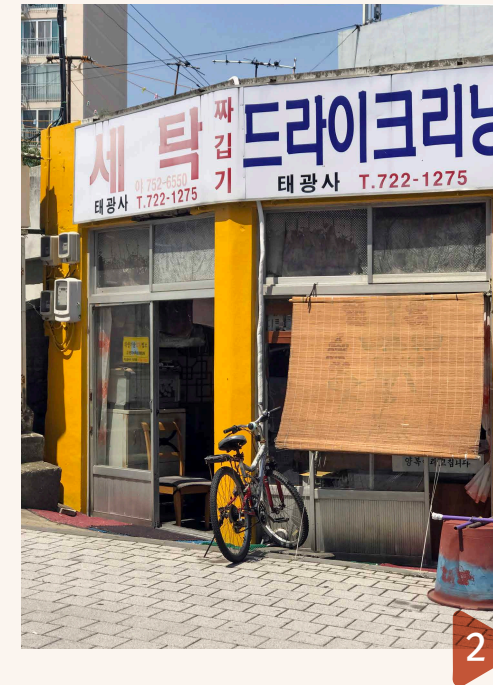
파사드(프랑스어: Façade)는 건물의
출입구로 이용되는 정면 외벽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건축에서 파사드의 궁극적 목적은 '소통'이다.
건물의 입면이 다양해지면서 파사드는
건물 외피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위키피디아



인상

파사드는 도시를 구성하는 건물과 내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접점이다.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첫 인상, 외면이 이에 해당한다.
누군가의 강렬한 첫 인상은 그 이후의 만남을
기대하게 하고, 궁금하게 하듯이
건물의 파사드 또한 그렇다.
파사드는 지나가는 여행자에게 또 방문자에게
'건물의 인상', 넓게는 '도시의 인상'으로써 남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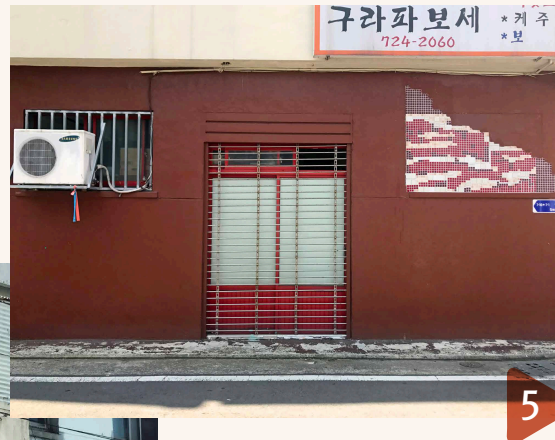


1. 관덕로 22,
일정한 비율의 반듯한 상가 벽면
2. 관덕로 16-1,
태광 세탁소의 오래된 간판과 노란색 벽
3. 관덕로4길 3,
독립 서점 미래책방과 옛 수화식당 간판
4. 관덕로4길 5,
북고풍 감성의 삼화피혁 상가 건물



시선

제주시 원도심의 파사드는 다양한 시간과 시선이 공존한다.
동문 시장, 중앙로 사거리의 쇼핑거리, 관덕정 등
원도심 속 공간은 누군가에게는 여행의 공간,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공간, 누군가에게는 지루할 수도
있는 일상의 공간으로 남아있다.



기록

나는 이주민이자 여행자의 시선으로 원도심의 파사드를
사진으로 기록했다. 목관아, 동문 시장, 산지천을
중심으로 하루 동안 걸으며 사진 속 건물을 마주했다.
길을 건다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건물의 형태,
외벽의 색감, 과거의 흔적'을 바라보면
아무런 감흥이 느껴지지 않았던 무생명의 공간이
나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듯 했다.



글·사진: 김지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소식지



5. 관덕로8길 9,
옷을 판매하는 구라파 보세 건물의 빨간 벽과 타일

6. 중앙로13길 32,
삼성 탁자와 한 쪽 벽면의 벽화

7. 동문로 16,
동문 시장 옛 건물의 디테일

8. 산지로 37-13,
간판을 가린 채 땅으로 늘어진 식물



9. 산지로 31,
비워진 건물의 분홍색 벽과 그 위에 무성한 초록색 풀

10. 임항로 45,
제주항 근처 수산 시장의 파사드



제9호 | [재생- 다시 Play]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는 도시의 기억들

버려진 공간 안에 별빛을 들어온 사람들

나는 길을 걷다가 빈 공간을 보면 “이 공간을 어떻게 만들면 재미있을까?” 생각해보곤 한다.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해보면, “오 그래? 재미있겠네”, “비즈니스 모델은 있어?”, “만약 그게 가능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했겠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 종합해보면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반응을 자주 접하다보면 어느 순간 스쳐지나가는 아이디어들을 누군가와 공유하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가끔씩 “오, 이 공간에서 이거 한 번 해볼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별빛공장’, 서귀포시 염돈로에 위치한 이 곳은 20년 전에는 연탄공장이었으며, 처음 봤을 때 천장이 없어 하늘이 보이고 거친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여 폐공장터로 남겨진 공간이었다. 그 공간에서 아티스트들과 함께 기존과는 다른 ‘날 것’ 그대로의 공연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다. 그들의 이야기다.



애월바다에서 쓰레기를 정리하며
별빛공장과 어울리는 보물을 찾고 있는 김영범



별빛공장에 전시된 업사이클 작품과
미술작품을 안내하는 표지판과 총감독 홍민아

Q. 자기소개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볍게 공유해주신다면?

김영범 “제주에서 작은 성공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작년에 제주에 내려왔고, 제주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겪어내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다양한 실험을 실행해 나가는 중입니다. 제주에 오기 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는 창업,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의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청년이예요.

홍민아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지?”라는 고민과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태에 몰두하고 집중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렇게 몰입하여 연구한 결과물이 “나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건강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맞춰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공연기획과 연출을 하고 있어요.

Q. 어떤 계기로 이번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나요?

홍 어떤 분께서 “이 공간에 새로운 콘텐츠를 심어보면 어떨까요?”라고 제안해 주셨고, 예전부터 건강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했어요. ‘별빛공장’이라고 명명한 이 공간은 서귀포 시내에서 가깝지만, 숨겨진 비밀스런 느낌 이죠. 공간을 처음 봤을 때, ‘허허벌판이지만, 여러 가지 시도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하지만 정말 힘들겠다!’고 생각을 했죠. 천장이 없는 ‘야외의 공간’, 거친 느낌의 ‘시멘트벽’, 무질서하게 튀어져 나온 ‘철근’, 긴 세월 동안 노출되어 ‘녹슨 연탄틀’ 등 그 공간에 놓여있는 것들이 재미있게 느껴졌어요. 굉장히 거칠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이었지만, 마치 화가가 새하얀 도화지를 보면 무슨 그림을 그릴지 떠오르듯, ‘새로운 공연들로 이 공간을 채울 수 있겠다’라는 느낌도 함께 들었죠.

김 ‘이 공간을 발굴하고 살려야겠다’라고 시작한 것이기 보다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 위해 기획하다 보니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 질문을 바탕으로 공간에 대한 흔적들을 찾았죠. 그렇게 흔적을 찾다가 쓰레기더미를 치우다가 한 20년쯤 지난 ‘안전제일표지판’을 발견했어요. 그 때 “와! 이거 보물이다.” 외쳤어요. 다들 웃으며 즐거워했죠. 예전 시간에 대한 호기심을 담아 질문하니, 모든 공간에 대한 사물들이 전과 다르게 보였어요. 안전제일표지판, 연탄틀, 고장난두꺼비집(누전차단기) 등 버려진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쓰레기’가 아니라 ‘보물’이 되었던 거죠.(웃음)



20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보물들로 만든 별빛공장 시그니처

Q. 나무 파레트를 이용한 무대 디자인이 독특 한데, 어떤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셨나요?

홍 ‘공연은 어떻게 올릴까? 객석과 무대는 어떻게 만들까?’ 등 고민이 많았죠. 공연을 연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항상 가변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무대, 객석이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면 다양하게 다른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니까요. 빈 공간에서 실험적인 것들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싶었죠. 다만 하나 고려 사항은 재정상태이기도 했어요. 시작부터 0원, 아니 마이너스로 시작했으니까요.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닌 곳으로 만들어갈 방법을 찾아갔어요.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죠.(웃음) “200~300명은 들어와야 하니, 맨 땅에 돛자리 깔자고 하자”, “이렇게 저렇게 의자를 놓아보자!” 등등 나열하기 힘들 만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남는 나무 파레트를 소개해주었고, 그 덕분에 나무 파레트를 활용해 가변성이 담긴 무대를 만들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Q. ‘별빛공장’을 처음 보았을 때와 무대가 완성된 후 느낌이 어떠셨나요?

김 첫인상은 외로워 보이는 공간이었어요. 한때는 사람들이 땀 흘리며 연탄을 만들었던 생산적인 공간이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버려진 공간의 느낌이었죠. 그런데 무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저에게 활기를 주는 공간으로 바뀌어 갔어요. 그 공간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찾아와 각자의 재능으로 기여하면서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걸 느꼈어요. 우리들의 운기로 채워졌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새로운 시도의 공연들이 이뤄지면서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홍 연극에서 “Magic if 마치 마법처럼”이란 말이 있듯이 상상 속에 있던 것들을 무대 위에서 현실화시키는 방법으로 해본 거죠. 내 금쪽같은 아티스트들이 주변에 있었고,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구현해 내고 싶었고, 가장 손쉽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화려하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들도 함께 실험하고, 시도해볼 수 있는 공간이었던 거죠. 일반적인 대중가요, 걸그룹 같은 대중문화 콘텐츠가 아닌 진지한 콘텐츠(첼로연주, 장구, 한국무용, 살사댄스, 밴드 등)들로 구성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관객과의 긴밀한 소통, 호흡, 흥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공연의 이름이 ‘Impossible dream’이기도 하였고요.

공연이 불가능해보이는 ‘이 거처른 허허벌판’에서도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을 실제로 실현해 낸 느낌이었죠.

Q. 공연을 기획하고 무대를 만들어가면서 느꼈던 시행착오는 무엇이 있었나요?

김 당시에는 ‘비극’이었는데, 지금은 ‘희극’이라고 생각합니다.(일동웃음) 진행과정 내내 고질적인 문제는 인력문제였어요. 메인기획자 3명에서 기획할 수 있는 행사 규모는 아니었죠.(웃음)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한 예로 당일에 공연 해주셨던 한 첼로리스트 선생님께서는 공연이 끝난 후 마지막까지 남아, 공연장을 함께 정리해 주셨어요.

홍 천장이 없는 야외무대였기 때문에 비와 바람 등 날씨의 영향을 계속 받았어요. 이런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 무대설치가 더더지기도 하고, 이미 설치한 우산과 같은 소품이 찢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은 큰 시행착오나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노력과 나무파레드로 만들어진 별빛공장의 무대

그런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작업하면서 능동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고, 다시 상황에 맞춰 적용해 보는 과정이 재미있고 좋았어요.(웃음) 별빛공장이 가진 ‘날 것’의 느낌 자체가 좋았죠. 그러면서도 그 공간에



2018 별빛공장 쇼케이스
'Impossible Dream, 맨땅에 헤딩!'

공연일시
2018. 5. 21. 월. pm5~10

공연내용

반짝 갤러리

- 양미경 화가
- 김지환 업사이클링 작가

어른이 놀이터

- 전통놀이문화지원협의회 전통놀이
- Artist's Living Lab & Ground
- 노는 게 제일 좋아

종합공연선물

- The PARAN Dansingers 퍼포먼스
- 김한결 한국무용
- 예지영 첼로
- KieunCHA x JihyePARK PROJECT
- 박수현 콘트라베이스
- Ventus 살사댄스
- 국악연희단 하나아트 장구 퍼포먼스
- 최승열 밴드 밴드음악

네트워킹 파티

주최 Artist's Living Lab & Ground

주관 The PARAN, 살림문화학교

대한 확실한 권리를 보장받고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어요.

김 맞아요, 소유권이나 다른 사용할 권리가 없으니 진행하면서 되게 힘이 빠지는 상황들이 있었죠. 자원과 사람들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우리와 공감하여 함께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할수록 에너지가 생겨났어요. 그런 연결 사이에서 보이지 않지만 무엇보다 단단한 가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Q. 마지막으로, 이 공연을 하면서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요?

김 에피소드를 떠올려 보면, 와디즈(크라우드펀딩)에 올렸던 ‘사서고생티켓’이 생각나요. ‘사서고생티켓’은 1,000원을 내고 3일 동안 공연준비 및 진행과정을 함께 하고 실제공연을 즐길 수 있는 티켓이었어요. 처음에는 “과연 이 티켓을 살 사람이 있을까?”라고 기획단끼리 이야기 했었죠. 그런데 정말 누군가 산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생각하며 전화를 걸어 “혹시 제주도 여행 하시는 일정과 저희 공연 일정이 맞으셨나봐요?”라고 여쭙봤어요. 그랬더니 “그 공연 때문에 제주도 가는 거예요”라고 해맑게 웃으면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제주에 아무런 연고없는 분과 함께 3일간 동고동락하며 함께 공연을 만들고, 즐겼죠. 그 에피소드는 공연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힘을 얻은 일이었어요.



Djing 리듬과 숨겨있던 사람들의 흥이 어울어진 순간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상상들을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장이 있다면 어떨까? 누구든 자연스레 떠오르는 생각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고, 그 생각이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받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나타난다. 오래되거나 버려진 공간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도 비슷할 것이다. 그 공간을 보고 새롭게 상상하는 이, 무엇인가 만들어보고 싶은 이, 그리고 자신의 작은 일부를 기여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이, 모두가 서로 연결된 느낌을 가질 때 변화는 시작된다. 나아가 그들 사이의 공명이 일어나면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도 하나씩 실현되어 간다. 그때 비로소 각자의 빛이 그들 사이의 ‘보이지 않는 가치’들로 조화를 이루며, 공간 안에 ‘별빛’이 가득해 질 것이다.

글: 오세광 | 사진: 박중일

예술을 사랑하는 산책자가 바라본 제주도

“어디에나 시간의 흔적은 있다”

평소에 ‘제주도’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터전일 수도, 어떤 사람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여행지일 수도 있다. 만약 제주도를 ‘삶의 터전’으로만 느끼고 있다면, 그저 일상적이고 익숙한 곳으로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익숙한 시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선으로 주변을 살펴볼 기회가 많다는 이야기도 된다. 정처 없이 제주도를 돌아다닌다고 해도 우연히 마주친 매력에 빠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도’는 딱 한 가지로 정의하기 어려운 곳이 아닐까 싶다.



올레길 8코스 대평포구의 빨간 등대와 소녀상

조금만 시선을 들어보다

종종 올레길을 걷다 보면, 아기자기한 골목길에서 바다로 벗어나, 곳곳에 숨겨진 예술 작품을 찾아볼 수 있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일례로, 올레길 8코스 중에서 대평포구 방파제 끝에서 빨간 등대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시각적인 즐거움이 생긴다. 등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다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하늘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한 소녀상을 발견할 수 있다.

처음에 빨간 등대에 집중되었던 시선이 소녀상을 발견하면서 바다와 하늘까지 살필 수 있는 뜻밖의 여유로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경험만으로도 잠시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 낯선 시선으로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다.

이제 다시 바다를 따라 걷다 보면 철사가 입체적으로 얹히면서 해녀로 형상화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이 해녀상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평온한 얼굴에 집중이 되었다가도 순간순간 비어있는 몸을 지나쳐 바다를 볼 수 있다. 실제로 해녀들이 잠수할 때마다 1분씩 숨을 참으면서 바다와 한 몸이 되어서 물질하는 모습처럼, 일부러 바다가 보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몸을 투명하게 만든 것이 아닐까 싶다.

앞의 소녀상에서 일상으로부터 벗어난 여유가 느껴졌다면, 이 해녀상은 제주도의 역사와 시간이 쌓인 집합체에 가깝다. 비록 이 조각작품을 통해서 바다를 바라본다는 것만으로 새로운 관점의 세상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와 제주도민이 거처온 시간의 흔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삶 속에서 조금만 시선을 틀어도 충분히 새로운 관점이나 영감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도시 쪽으로 나아가 살짝 시선을 틀어보면 어떤 세상을 만날 수 있을까?

도시 속, 시간의 흔적을 관찰하다

제주도의 원도심을 따라 흐르는 산지천을 따라 걷다 보면 오래된 글씨체로 ‘금호’라는 글자가 적혀있는 굴뚝을 발견할 수 있다. 멀리서 보면 영락없이 ‘여관’이지만, 실제로 가까이 가보면 ‘산지천 갤러리’라는 간판이 달린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오래된 건물 그대로 남겼지만, 속내는 미술관인 사례의 한 공간이 떠올랐다. 바로 영국의 'TATE MODERN MUSEUM'으로, 런던의 템스강에 위치한 현대 미술관이다. 다음 장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강너머 가운데로 우뚝 솟아선 굴뚝을 통해서 ‘산지천 갤러리’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 올레길 8코스에 위치한 해녀상



산지천 표구방향에서 바라본 산지천 갤러리



영국의 TATE MODERN MUSEUM

두 곳 모두 굴뚝이 시선을 사로잡는다는 점에서 재밌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산지천 갤러리의 경우에는 오래된 여관(구. 금성장, 녹수장) 두 동을 연결하여 리모델링을 했다면, 영국의 TATE MODERN MUSEUM은 화력발전소로 쓰이던 곳을 리모델링을 했다. 그리고 성공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명소로 거듭났기 때문에 본래 낙후되었던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은 사례이기도 하다.

이렇게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주변에서 흔히 볼 법한 낡은 건물과 간판이라 해도, 그냥 지나치기 아쉬운 새로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본래의 의미를 잘 살리기만 해도 원래 있던 것에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낮선 시선으로 도시를 재조명하다

그렇다면 ‘낮선 시선’으로 자신의 삶과 머무르고 있는 도시를 재조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낯설게 하기’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친숙하거나 익숙화된 사물이나 관념을 특수화하고 낯설게 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어떠한 것을 특수화하고 낯설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심과 애정이 담겨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낮선 시선’은 자신을 둘러싼 삶 그 자체를 더 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 행위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삶이 무료하고 주변이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면,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곳을 유심히 관찰하기만 해도 전에 보지 못했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글·그림·사진: 김민정



동문시장 인근에서 바라본 산지천 갤러리

과거와 현재- 두 개의 시간, 두 개의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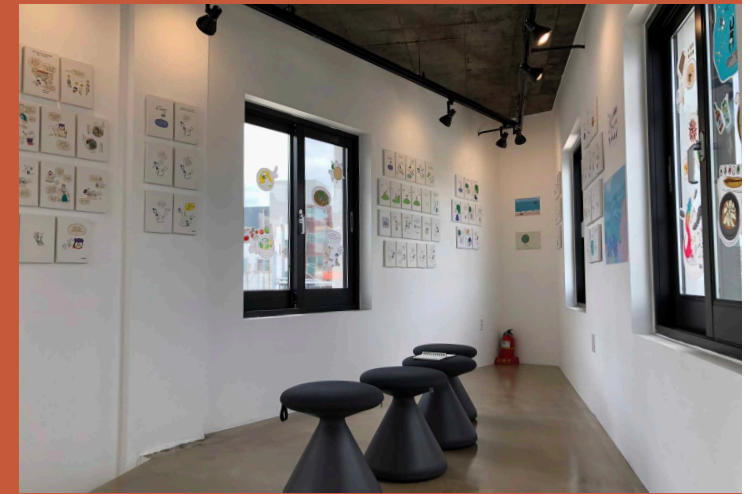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 기획전 공간 답사

항구 옆 웬지 거친 질감의 건물과 사람들 사이,
그 모퉁이 한 칸에 비밀스런 계단이 이어진 조그마한 입구로 향했다.

‘코지왓’ 전시공간 _탐미생활 展

M의 시선 좁은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3층까지 흔히 전시회에서 볼 수 있는 깨끗한 흰 벽에서 작품이 도드라지게 나열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J의 시선 계단을 올라 마주한 ‘코지왓’은 생각보다 낮고 좁은 삼각꼴의 공간이었다. 새하얗게 정비된 벽과 창문 곳곳, 제주 음식 문화와 관련된 소소하고 재미난 표현이 가득 담긴 일러스트와 만화가 어우러져 있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진 특유의 좁고 투박한 계단은 위층으로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게 했고, 같은 형태의 두 층이 각각 다른 두 작가의 전시 공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코지왓’과 ‘코지왓티’의 경계선

M 그렇게 3층까지 깔끔한 전시회를 다 둘러본 후, 상상하지 못했던 문을 발견할 수 있다. 그 문을 발견한 순간 제주도의 오래된 집으로 빨려들어 갈듯한 상상에 빠지게 되었다.

J 거친 외부 질감에 비해 비교적 깔끔히 재정비되었다고 느끼는 순간, 새로운 문으로 연결된 통로가 나타났다. 문 너머 공간은 나무로 지어진 오래된 가정집처럼 보였다. 마치 한 건물 안에서 다른 시간으로 여행하는 듯 했다.

‘코지왓티’ 전시공간 _원심력 展

M 전시공간1_산지천의 역사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고 오래된 집에 들어가 보니 바로 눈길이 가는 것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지천이다. 마치 그 동선을 예측한 것처럼 산지천의 역사와 정보가 담겨 있는 방을 둘러볼 수 있다. 그리고 그때에서야 ‘코지왓’과 ‘코지왓티’가 어떤 곳인지 눈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만들기'란?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추진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 내 유휴공간의 명소화 및 원도심 유입 거점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

구)황지식당(임항로 57), 구)유성식품(관덕로 17길 27) 공간을 리모델링하였으며, 이번 기획전에서는 각 전시 공간의 특색에 따라 크게 '탐미생활 展'과 '원심력 展', 두 가지 주제로 6/29부터 2주간 전시되었다.

전시공간2_은행공프로젝트가 소개된 부엌 ‘코지 왓티’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다. 독특한 화구의 형태며, 평소에 우리가 접한 부엌의 모습과 다른 것만으로도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전시공간3_‘코지왓티’의 시간의 흐름이 보이는 방 부엌을 나와 바로 옆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황지식당’ 간판이 보인다. 전시회에 갑자기 ‘식당 간판’이라니? 하지만 주변에 나열된 정보들을 보면, 전시회를 하던 곳이 원래 ‘황지식당’이었기 때문에 간판을 버리지 않고 활용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넓은 나무문으로 조심스럽게 들어선 내부는, 오랜 시간 동안 이 공간에 존재했을 원래의 사물과, 바로 엇그제까지도 새로운 손길이 얹혀졌을 전시 작품이 묘하게 잘 공존되어 묵직하고도 고요한 에너지를 뿜고 있었다.

나는 독서를 할 때도 꼭 목차 순서대로 읽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선을 따라가는 편을 선호한다. 그러럼, 그저 발 길이 닿는 동선대로 훑어보다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이끌려 독특하게도 장롱 속에 상영되고 있던 영상 작품을 관람했다가, 맞은편 방 창밖 너머의 산지천 물결을 가만히 바라보았다가, 마침 계셨던 전시 공간 기획자분의 안내로 놓여진 소품과 아카이빙 작품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발견해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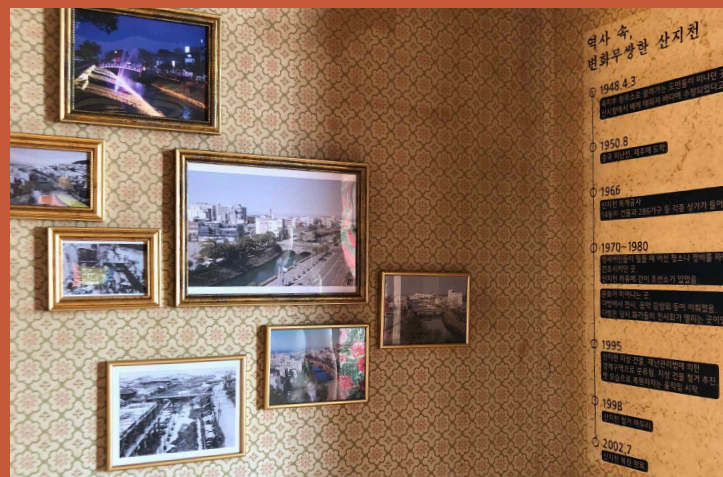
그 후 기획자분과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곳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그냥 버려질 수도 있던 쓸모없는 물건들이 마치 보물처럼 발견되는 순간이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그 물건들은 대부분 아주 빛이 나거나 주인이 꼭꼭 감추어두었던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 속에서 습관처럼 사용되었던 도구나 연장들, 의외의 곳에 붙혀져있던 스티커 같은 것이었다.

그 이후

M ‘코지왓티’ 주변과 자체적인 공간의 역사와 그 역사를 함께 한 사람들의 인터뷰가 적힌 문구를 보다 보면 공간과 시간, 그리고 사람은 함께 흘러간다는 것을 상기할 수 있었다. 그런 덕분일까? ‘코지왓티’를 거쳐 ‘코지왓’,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와도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옛 제주도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한때는 반짝였을 집과 물건들이 궁금해지는 시간이었다.

J 당시 사용되던 상황을 상상할 수 있다가, 켜켜이 쌓인 시간의 때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어떤 것들...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도 누군가가 나의 자금을 떠올려준다면, 그리고 심지어 영감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정말 멋진 일일 것 같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예전의 흔적들, 원도심을 제대로 조망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 아닐까.

글·사진: 김민정, 김주미



제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함께 할 전문가 활동 시작

도시재생 뉴딜 전문가 교육 수료생 34명 배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문가(코디네이터)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을 가졌다.

도시재생 뉴딜 지역역량강화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기초 확산을 위해 관련 업종 종사자 및 전문가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사업주체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도내 도시재생 관련 업종 종사자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도시재생 취지와 맞지 않는 개발사업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교육은 국회 도시재생전략포럼 공동대표 이우종 교수,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상준 수석연구원 등 국내 최고 도시재생 전문가들과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지원기구 실무진들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이해는 물론 활성화계획 수립방법 및 실제 수립사례 소개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필수 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마지막 과정은 교육 참여자들이 직접 제주형 도시재생 모델 및 단위사업을 발굴하는 워크숍도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에는 신청자 48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7월 9일(월)부터 7월 11일(수), 09:00~18:00까지 24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육비는 전액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되었다.

총 교육과정의 80% 이상을 수강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됐다. 이날 수료한 34명의 수료생들은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DB에 등록되고, 향후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예비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7년에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정책방향의 이해 확산을 위한 현장 활동가 교육을 진행하여 2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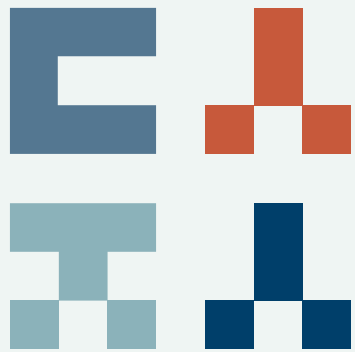
도심, 건물, 블록을 담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새로운 CI

블록들이 더해지고 빠지고 곱해졌다 나뉘지며 공동 번영과 지역의 가치를 재생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정체성 및 비전을 반영한 독창적이면서 센터의 이미지를 쉽게 전달 할 수 있는 통합 이미지 개발 과업이 지난 6월 30일 마무리가 되어 CI 디자인이 나왔다.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아이덴티티의 대표 이미지는 대 외·공식적인 성격을 띠는 모임 및 행사에 주로 사용한다.



공식심벌

도시재생의 각 첫 글자 (도-시-재-생)간의 조합. 그 안에 제주를 담는다. 사각의 블록들이 더해지고 빠지고 곱해졌다 나뉘며 자음(consonants)형태를 이룬다. 이는 도심, 건물, 블록 등을 상징하며 공동 번영과 지역의 가치를 재생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색상은 원도심의 고유한 색상을 추출하여 주조색과 보조색을 결정한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국·영문 공식 시그니처는 심볼과 로고타입을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조합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이미지 통일을 기하였다.

Urban.J



로고마크 Urban.J는 아이콘 형태로 비교적 비공식적이며 센터의 친근함이 강조되는 행사 및 이벤트에서 주로 홍보용으로 단독/조합형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Urban.J는 'Urban Jeju'의 약칭형 로고마크이며 센터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로고마크는 센터의 사업별 카테고리를 포괄적으로 담는 이미지와 함께 사용된다.

Urban.J 사업별 카테고리의 분류는 아이콘 형태로 구성되며, 기본형인 UJ의 그리드를 사용하여 카테고리 아이콘이 개발된다.



이번 CI개발 결과물들은 각종 센터 관련 홍보물 및 온·오프라인 매체에 순차적으로 변경·반영될 예정이다.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돼야”

주민발언회 2018 공감마이크 오븐 3회
주민참여형 가로심터 조성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우리동네 가로심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지난 7월 10일에 열린 2018년 3번째 오븐은 지역 주민, 전문가, 활동가 등 10여명의 참여 속에 ‘우리동네 가로심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라는 주제로 ‘삼도2동 176번지 일대’ 약 110평의 공간의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주민들의 공간이 필요하다”

동네 카페에서 편안한 분위기로 발언회가 시작됐다. 해당지역 통장을 맡고 계신 A씨는 주민들의 쉼터 공간을 이야기 했다. 현재 원도심 내 어르신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한적인데, 이 공간을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B씨는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이 방과후에 뛰어놀만한 놀이터가 부족하다며 흙을 만지기 힘든 도심 속에 아이들의 자연 놀이공간으로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에 활동가 C씨는 본 사업지가 문화재보호구역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축물을 세우기에는 문화재검토영향평가 등의 복잡한 절차가 있고, 해당 부지의 역사성 등도 고려해야될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주민들은 각자가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특정인들을 위한 공간이기 보다는 전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것에 동의했다.

약 한시간의 자유 발언이 끝난 후, 사회자의 진행으로 발언회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관련사항에 대한 가능 여부 답변을 행정에 요청하고, 추후 피드백 행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다. 행사에 처음 참여한 주민 D씨는 주민들의 생각의 반죽을 오븐에 넣고 맛있는 빵으로 만드는 이 시간이 새롭다며, 앞으로도 자주 참여하여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주민의 목소리가 계획이 됩니다”

공감마이크 오븐은 ‘오븐에서 빵을 구워내듯, 주민의 생각을 맛있게 구워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발언주제의 선정도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제시됐던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예비주제’를 선정한 후 주민 및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주민발언 주제를 최종 선정했다.

공감마이크 오븐은 기존 주민토론회와는 달리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주제에 대해 사전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발언과 제안, 질문사항을 정리하는 프로세스로 1차 운영된다. 이후 약 4주의 시간을 가지고 제안된 의견들을 행정에 질의, 얻어낸 답변을 통해 피드백 행사를 진행하여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들을 찾게 된다.



제주시 원도심을 바꿀 방법을 찾아보다

'리노베이션 스쿨 in Jeju' 현장스케치



※ 본문 내용어 참조

유닛: 팀
유닛 워크: 팀 단위 활동
스몰 에어리어: 지역 재생 범위
쇼트 프레젠테이션: 발표
브러쉬업: 피드백
라이브 액트: 유닛 마스터의 강의

01

일도 1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7.5(목)에서 7.8(일)까지 진행된 '리노베이션 스쿨 in Jeju'는 '제주 도시재생센터'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일본 (주) 리노벨링'이 함께 협업하여 만든 '실천적 도시·지역 재생 수업을 배우는 단기집중형 스쿨'이다. 이번에 최초로 한국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원도심에 위치한 오래된 지역(여관, 상가, 주택, 산지전 주변)을 대상으로 유닛을 이뤄 유닛 참가자와 유닛 마스터가 함께 지역 재생의 방법을 찾아 발표하고, 유닛 마스터의 피드백을 통해 발전하는 방식으로 채워졌다.

02

행사가 진행된 첫째 날은 제주지역 50%, 타지역 50%로 구성된 참여자들이 접수, 방을 배정받았고, 유닛 A, B, C, D로 나뉘었다. 한 유닛당 참여자는 모두

04

3일 동안의 유닛 워크를 거쳐 최종 발표날이 다가왔다. 산지전 갤러리 1층에서 진행되었던 이번 발표에서 '일동기립'이란 이름의 유닛은 종합 F&B 서비스인 '제주가 철철'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 유닛은 대상지가 동문시장과 가깝다는 장소의 장점을 활용한 방법을 제시했다. F&B레지던스, 키친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한 F&B 관련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실험적인 공간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표팀은 게스트하우스를 기반으로 장기 투숙객 전용 레지던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제주 이주민을 위한 정보제공, 커뮤니티, 현지인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내용을 담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주)칠성그룹' 유닛은 '칠성프린트'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컨시어지 서비스, 데이 라운지(카페), 나이트 라운지(펍), 대관 서비스 등을 통한 일상의 관혼 상제의 장을 제공하는 복합문화라운지를 제안했다. 마지막 팀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탐라광장 인근 활용 방안으로 꼬맹이 이야기 시장, 공유부엌, 잔디밭 놀이터 등이 함께하는 '산지놀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05

유닛 발표가 끝난 후 수료식이 진행되었고, 그 후 중앙로의 '우유부단'에서 진행된 네트워킹 파티가 열렸다. 한 유닛 참여자는 "기존의 주민참여형 도시 재생과는 또 다른 방식의 접근 방법이었다. 스몰 에어리어를 도출하는 방식이 신선했다"라고 이야기했다. 한 편으로, 4일간의 참여 기간 너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오가서 방향성을 잡기가 혼란스러웠다는 점을 짚었다. 또 다른 참여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도시재생에 관해 처음으로 접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고, 참여자들 과도 좋은 추억을 남겼다고 전했다.



글·사진: 김지현, 오세광

03

다음 날 아침 일도1동 주민센터 2층에서 아침 9시부터 본격적인 리노베이션스쿨이 시작하였다. 유닛 워크를 통해 모든 유닛은 유휴공간과 주변 지역을 직접 탐방하였다. 그리고 건물주와 미팅을 통해 건물의 역사, 건물과 관련된 스토리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관계성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쇼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쇼트 프레젠테이션은 발표 5분, 브러쉬업 15분으로 구성되었다. 이 시간 동안 유닛 참가자는 재생할 공간에 대한 새로운 콘셉트와 아이디어를 전달했고, 유닛 마스터들은 아이디어가 발전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후 라이브 액트가 이어졌고, 늦은 밤까지 유닛 워크가 이어졌다. 그렇게 2일 차가 지나가고, 3일 차의 날이 밝았다. 2일 차와 마찬가지로 유닛 워크, 쇼트 프레젠테이션, 라이브 액트가 진행되었다. 이날 유닛 대부분은 새벽 3시까지 진행하였고, 어떤 유닛은 새벽 6시까지 밤을 지새우며 다음 발표를 준비하였다.

곱들락한 신산머루 만들게 마썸

제주시 신산머루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2018년 4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제주 첫 사업지로 제주시 일도2동 1029-156번지 일원(이하 신산머루)이 선정되어 현장지원센터가 개소하였다.

사업부지는 45,616m²(주택 174호, 인구 646명, 304가구)로 2018 ~ 2020까지 3년간 ‘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의 사업이 진행된다.

총사업비 83억 (국비 50억, 지방비 33억)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택정비지원사업, 복합공공시설 및 임대주택사업등의 주거복지사업이 진행되며, 골목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의 안전환경개선사업도 진행된다.

이밖에 교육환경개선사업, 놀이터 및 공동텃밭 공동체 거점조성사업, 공동체 프로그램 계획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6월에는 ‘어떤 마을에서 살아야 행복할까’라는 주제로 도시재생대학을 진행하였으며, 현재 신산머루 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오는 7월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주민참여형 상향식 사업계획을 수립해 8월 중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지역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통해 노후주거지를 정비하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살기 좋은 마을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센터 활동소식

▶ 1기 신산머루 도시재생대학

- 6/1 ~ 6/26, 주 1회, 총 4회 진행
- 주민 11명 수강

▶ 주민활성화 워크숍 개최

- 6/19, 1차 워크숍
- 7/6, 2차 워크숍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주민이 직접 마을의 현안과 문제점을 찾아내고 다양한 주제 발굴



혼디 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을 만들쿠다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개소



현장지원센터 활동소식

▶ 1기 월평마을 도시재생대학

- 6/21~7/12, 매주 목요일, 총 4회 진행, 주민 25명 수료

▶ 도시재생 추진협의회 회의

- 5/30~현재, 매주 목요일 진행
- 마을대표, 현장지원센터, 행정, 용역사 실무진 활성화계획 수립 회의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주민설명회

- 7/9, 1차 설명회 50명 참석
- 7/23, 2차 설명회 40명 참석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센터장 이재근)는 지난 4월 2일에 서귀포시 월평마을회관(월평로 43, 월평동)에 둥지를 틀었다.

센터는 행정과 주민 간에 가교역할을 하는 중간조직으로서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자인 서귀포시 월평마을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월평센터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민협의체 지원과 도시재생대학 등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귀포시 월평마을은 신서귀포와 중문 사이에 있으며, 아기자기한 돌담길과 아름다운 포구가 있는 도농복합마을이다. 지난 2017년 12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주거지지원형) 공모에 ‘혼디 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었다. 사업면적은 99,410m²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4년이다. 월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재건축·재개발과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마을교육공동체 실현

도시재생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본격 가동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위해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들이 함께 ‘주민참여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지난 5월 31일 첫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공모 사업에 제주시 원도심 학부모와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품앗이 마을교육공동체’가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주민참여 프로젝트팀 공모사업’은 지역문제 해결의 아이디어가 있는 지역주민과 사회적 경제 주체가 분야별 전문가들과 팀을 이뤄 도시재생뉴딜 사업의 구상단계부터 사업화, 실제 운영 등의 전 과정에 걸쳐 과제를 함께 수행하는 활동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과 함께 협약을 맺고, 제주시 원도심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세부 추진방안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화 모델 개발을 위해 3개월 동안 사업방향과 구체적 추진 계획 등을 모색하게 된다.

품앗이 마을교육공동체 원혜경 대표는 “아이들이 행복한 원도심을 만들어가기 위해 아이들의 시각에서 재생이슈를 도출하고,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활동과 일자리를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 원도심의 미래를 함께 할 지역혁신 파트너를 모집합니다”

‘도시재생 Start-Up Challenge’ 공모 사업설명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주관하는 ‘도시재생 Start-Up Challenge’ 공모 접수가 4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되었다.

‘도시재생 Start-Up Challenge’ 공모는 제주시 원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과 함께 지속성장할 수 있는 도시재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원도심의 지역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역혁신 비즈니스를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건물주와 임차인, 행정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총 3억원을 지원하는 이번 공모는 총 3개팀 이상의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유휴공간 활용을 위한 기본공사비 최대 1억원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접수 마감에 앞서 5월 28일~29일 양일간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산지천갤러리에서 공모 사업설명회와 제주시 원도심 유휴공간 현장답사를 개최하였다.

제주와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총 25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참여하여 제주시 원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업화 공모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6월 20일 진행한 2차 현장답사에도 9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참여하였다.

공모 대상 사업자는 사업성, 보유역량, 목적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서류심사, 최종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7월말 선정할 예정이다.